

‘돈봉투 의혹’ 송영길 18일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6천650만원 살포·8억원대 정치자금·4천만원 제3자 뇌물 혐의 劉, 강래구 발부·이성만 기각…이재명 영장 기각하기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천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친형인 송영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국민의힘, 한국노총 선거에 노골적 개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올해 진행된 집행부 선거에 국민의힘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한국노총 선거 과정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치러진 제28

이뤄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한국노총을 노동자단체 대표로 존중하고 인정해달라는 것이었고 화답이 와서 제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정부 정책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를) 정책구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치부하면 대화는 성공할

“노동계를 정책구현 들러리로 치부하면 사회적 대화 실패”

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1천608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는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쟁 후보인 이동호 전 사무총장을 물밑에서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740표를 득표하며 3위로 낙선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은 자율성이 생김”이라면서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외부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전격적으로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에 직접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적인 의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대화하고 싶은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인구구조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낮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오찬을 겸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자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는 지난달 24일부터 가동 중이다. / 신재일 기자

與 ‘추가 희생’ 나올까…“흐름 계속될 것”, “김장연대로 충분”

영남 중진·친윤 초선 행보 주목…“당 망친 사람들 나가야” 주장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핵심인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가 나란히 2선으로 퇴장하면서 여당 내 ‘희생 결단’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로, 장 의원은 총선 불출마로 각각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주류 희생’에 응했다. 14일 당내에서는 ‘김장연대’가 불붙인 윤희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느 분을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움직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당직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찍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변화의 물결과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제는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추가 결단 여부로 가장 주목 받는 그룹은 이른바 ‘윤희관’(윤희석 핵심 관계자)



대화하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으로 불린 원조 친윤 의원들이다. 3선 이상 영남 중진 의원들의 선택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표 사퇴 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김기현 체제 옹호’ 글을 올렸던 10여명의 친윤 초선도 쇠신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비주류 의원은 “당을 망친 사람들, 전당대회 때 연판장을 돌리고 이번엔 또 김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던 초선들도

나가야 한다”며 “오히려 험지에서 박영으로 이겨 온 친윤 중진들보다는 그런 초선들, 특히 주도자들이 나가야 인적 쇠신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참에 용산, 지도부 흥위병으로 분수 모르고 설치된 애들도 정리해라. 그런 애들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혁신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은 적어도

마녀사냥식 분위기는 받아들이 수 없다는 기류다. 친윤·중진 의원들은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고, 김 전 대표를 옹호했던 초선들도 그의 사퇴 이후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일각에선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해찬·정청래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던 것처럼, 현재 당내에서 친윤 상징성이 가장 큰 ‘김장연대’의 퇴장으로 쇠신 의지는 충분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인사들에게 추가 불출마를 종용하기보다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총선 준비를 본격화해야 주장인 셈이다. 남은 인적 쇠신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이라는 의견도 있다.

선수, 나이, 지역 등으로만 기준을 삼기 보다는 실제 의정활동 성과, 당 안팎의 평판 등 객관적 기준으로 물갈이와 당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재형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김 박지훈입니다’에서 추가 희생 결단과 관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유익하다”면서도 “그런데 나가라 마라 하며 계속 당내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꼭 그래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대한민국 지식재산은 기술경찰이 지킨다!

최근 5년
해외 기술유출 피해액 25조원
해외 기술유출 건수 93건

특허청의 심사관 출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수사관들이 해외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관련된 범죄를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을 보호합니다

지식재산침해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의대증원 반대' 의협 내홍 돌출...파업 투표중 투쟁위원장 사임

최대집 전 회장, 투쟁위원장 사임하기로... "반발 세력이 현 집행부 압박"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맞서 총파업 찬반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겠다며 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은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사임하면서 내부 갈등이 돌출하고 있다.

의협은 14일 최 전 회장 명의로 "범대위 투쟁위원장의 사임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지 문자를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최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현 의협 집행부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문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



어깨띠 메는 의사들

를 열고 이필수 현 의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최 전 회장을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하는 범대위를 구성했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그리고 의협과는 별도의 투쟁조직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등 다른 의사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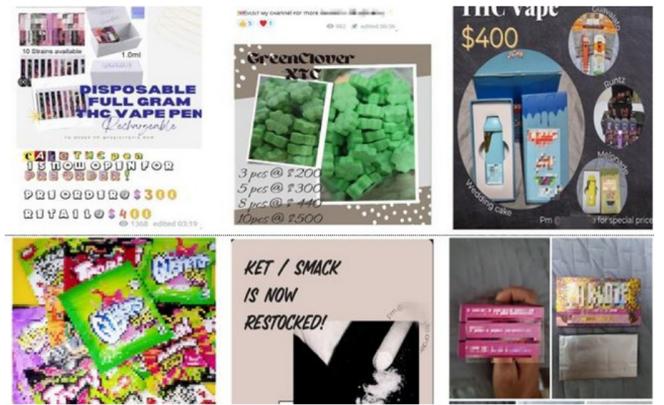
들이 이런 결정이 나온 직후 최 전 회장의 '등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지금 의료계가 하나로 일치단결해야 하는 순간에 최 전 회장을 불러온 것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

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끝에 정부와의 의정합의(9·4 의정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다. 당시에도 내부 의견을 배제한 함의라며 의사 단체 일각에서 반발이 있었다. 최 전 회장의 사임은 내년 3월에 있을 새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차기'를 노리는 의료계 인사들 사이의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삭발 등으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힌 최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동력이 어느 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관측도 나온다. 의협은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집단 휴진)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또 투표와는 별개로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을 저지하는 행동을 준비 중이다. /윤형석 기자



피피자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린 개량형 마약 홍보 판매 게시물

서울에 거점 두고 마약 동남아로 싱가포르 조직 적발...텔레그램 활용

서울에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에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11월 7개월간 사이버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해 10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의 국제 마약 판매조직 총책 A(37)씨 등 4명(구속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자국 내 조직원들과 공모해 신종 대마와 필로폰 등을 해외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싱가포르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를 피해 강남과 이태원에 잠입해 합숙 생활을 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젤리, 캔디, 전자담배 등으로 개량한 마약을 싱가포르 등에 판매해 2억5천만원 상

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도 연계하려던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자 한국계 싱가포르인을 영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싱가포르 중앙마약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처음으로 텔레그램을 활용한 국내 거점 해외 마약 판매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전 세계 어디든 거점을 마련하는 등 마약류 유통 방식이 초국가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마약조직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점조직을 통해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는 통상적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압수한 해시시는 약 2kg으로 최근 3년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압수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형민 기자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0명 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이모(48·자영업)씨가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천20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강모(50·회사원) 씨도 9년간 약 5천4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



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현 기자

가수 박유천·'쌍갈' 박준규 역대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체납자 7천966명 명단 공개...체납액 5조1천313억원 전년보다 늘어



가수 박유천(CG)



배우 박준규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육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천 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전년보다 공개 대상 1천26명, 체납액 7천100억원 늘어...100억원 이상 체납자 25명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

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쌍갈'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천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천 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 TV드라마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조세포탈범' 명단에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

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천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 '육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호 기자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비주류 4인방, 이재명 대표 사퇴·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

“李, 한발 물러서달라...리더십 리스크 해결로 총선 승리해야”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조영천, 윤영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4인방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계 등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김종민·조영천·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 발만 물러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 대표가 선당후사(先黨後私)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이 결정에는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라며 “원칙과 상식 네 사람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명) 한 목소리의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 586 중진들이 각자 기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어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다)을 들며 “한 번의 선거 당리당락을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후민(先黨後民)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네 명 모두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놔달라”며 “협치 출마든, 백의 중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대체하는 기구로 비대위를 만들되 이전 ‘김은경 혁신위원회’처럼 편향적인 기구가 아닌 친명·비명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여러 의원이 그에 대해 비판도 하지만 비판보다 우리 당 혁신을 먼저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본다. 그래야 신당 움직임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형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당정관계 재정립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도 효과적”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4일 총선을 앞두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대해 “여권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합동 북콘서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 재정립 같은 것이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당 지도부 체제 확립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 “특별히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의 요청이 있으면 수락하겠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오현서 기자

민주 ‘2호 총선 영입인재’에 엔씨소프트 출신 기업인 이재성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재 2호’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인 이재성 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성 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롤 모델”이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넘나든 4차산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혁신경제를 끌어 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 출신인 이씨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뒤 포항공대와 부산고신대를 거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이동통신회사 한솔PCS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2년 벤처회사인 넷마블로 이직했다.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간 임원을 지냈다. 또,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처스플래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테크 대표이사(CEO)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씨는 보도자료에서 “4차산업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용 능력을 토대로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민추협 세미나...이석현 “윤 대통령 검사정치 포기하고 이재명 사심 버려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4일 “공천권에 먹살을 잡아서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소신 발언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잘못된 공천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회장인 김 전 대표는 이날 민추협과 김영삼민주센터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신 있는 철학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정당민주주의의 요체인 민주적 상향식 공천 이외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자유 경선을 통한 공천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건전한 정치 풍토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진보 모두 기득권 세력화



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텀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를 국민들은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범법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는 국회를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추협 공동회장인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그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정치 문법과 검찰 문법은 다르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정치를 포기하는 날 국민의힘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사심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을 이끌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고문이지만, 위성정당을 하려고 하면 또 믿음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그렇게 정치하니 낙연 신당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국민은 여야의 그런 정치에 식상해하고, 말 없는 중도적 다수가 제3차대에 눈길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현주 기자

이준석 “권성동은 이미 ‘윤핵관’ 아냐...누린 게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4일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에게) 바른말 하다가 이미 윤핵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에 이어 “다른 윤핵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줄인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 널리 회자했다. 장 의원과 권 의원 등이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으로 꼽혔다.

이 전 대표는 권 의원에 대해 “누린 게

없다. (다른) 윤핵관들이 이상한, 잡다한 영예를 누릴 때”라고 했다.

장 의원이 ‘막후 실세’로서 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권 의원은 이 같은 영향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때 ‘브라더’로까지 불리던 이들은 지난해 이 전 대표 사퇴 국면에서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은 권 의원을 윤핵관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권 의원을 윤 대통령과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부터 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예전 개막식 참석한 권성동 의원

선 과정까지 되짚어보면 권 의원은 정권 교체의 일등공신”이라며 “권 의원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윤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평가했다. /박준혁 기자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부터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평생 수수료 0원 🍊 달콤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02402955(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9(2023.11.17.) 유조기(간.2023.12.31.) ※사제한 문외는 거래 영입점 또는 고객센터(02-556-2000)로 문의 ※개인IRP는 예금보통과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며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0만 원(이하)까지(운용회사별 한도)에 한하여 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과 보호 상품 아님 ※투자자별 설정 한도 및 상품 설정서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개인IRP 연금의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펀드) 유의사항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펀드)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상환은 지위(원금지급형)로 구분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펀드)는 개인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구매 가능 ※예금보통과 보호 상품 아님 ※자산가액
변동 발행회사 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회사(BK투자증권)와, 2023.02.28. NC다산유망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청약의 권유는 예비·이
투자설명서 내 따름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전략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손실을 초과 가능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일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였다” 해명

“감정 음성이라고 부실수사는 아냐”...이선균 수사는 공갈 사건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이 부실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한 권씨를 다음 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



경찰 출석하는 지드래곤

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A씨 등을 고소한 공갈 사건부터 먼저 수사한다

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씨 수사의 경우)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공갈 사건부터 해결해야 마약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통신·금융 내역도 분석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 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을 함께 고소했다.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 송진영 기자



이승만·이정학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쏘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38구경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재판에서는 ‘누가 총을 쏘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정학은 수사 기관에서 이승만이 총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이승만은 처음에는 자신이 총을 쏜 게 맞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반복해 재판 내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권총을 쏘 김씨를 살해한 건 이승만이 맞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만

을 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강현수 기자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

새벽에 천장 두드리는 등 31차례 소음...“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공통 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 발표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

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A씨는 빌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

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 홍승연 기자

진도 해역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사체 발견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의 사체가 발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인근 항 내에서 A(50대)씨가 설치한 그물을 올리던 중 물범이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점박이물범은 길이 약 171cm, 폭 42cm, 무게 약 150kg으로 불법 포획 등 인위적인 포획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국립수산물관리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점박이물범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인계했다.

/ 신지호 기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지원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 ☎ 1588-0075

사장님, 그거 아시나요?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 가능
- 내일배움 카드제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 가능
-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 함께 일하는 가족도 가입 가능
- 업무상 사유로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최대 50%

*일부 지자체 중복 지원 시 최대 100%지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일부 가입제한 요건이 있으니 자세한 가입조건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주의 참사에 물난리까지...가자지구 폭우에 피란민 고통 가중

텐트 무너지고 물에 잠겨...비위생적 환경에 전염병 확산 우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 중인 가자지구 전역에 겨울 폭우가 내리면서 피란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 2개월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도주의 참사가 벌어진 와중에 물난리까지 닥치면서 텐트가 물에 잠기고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



겨울비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밤새 가자지구 전역에는 큰비가 내렸다.

이스라엘 기상청은 당시 지중해 연안 대부분 지역에 약 10~35mm의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북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이스라엘 도시 아슈켈론에는 15.9mm의 비가 내렸다.

가자지구에서 우기는 통상 11월~3월로 이 기간 연간 강우량의 대부분이 쏟아진다. 밤사이 내린 비로 비포장도로는 진흙탕이 됐고 거센 비바람에 텐트가 무너졌다. 피란민은 젖은 몸을 말릴 수 없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됐다.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머무는 람지 무함마드(31)는 "약 한 달 전 가자시티에서 대피할 때 겨울옷을 받지 못했다"면서 "밤을 버티기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껴안고 몸을 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도 담요를 구할 수 없다"면서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

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지상 대부분을 장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부에서도 지상공격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이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하고 시내 중심부에 진입, 지상전을 본격화하자 피란민들로 이미 인구 과밀 상태였던 이곳은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재 가자지구 인구 90%에 해당하는 약 190만 명이 난민 신세다. 이들 상당수가 임시 텐트에서 옷가지 등을 덮은 채 추위를 견디고 있다.

라파에서 지내는 아지자 알-샤브라위(38)는 텐트에 고인 빗물을 피내면서도 상황이 이미 최악이라고 AFP 통신에 호소했다.

그는 "아들은 매서운 추위 때문에 몸이 아프고 딸은 맨발이다. 거지와 같은 신세"라면서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도 돕지도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수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비가 내리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앞서 마거릿 해리스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수인성 전염병과 박테리아 감염, 유아 설사가 늘고 있다면서 "비가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신정호 기자



정상회담서 시진핑 발언 듣는 바이든

“미중, 내년 고위급 군사회담 협상 중” 소통채널 복원에 촉각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대화 채널 재가동을 위한 고위급 회담 등 후속 조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의 관련 제안 이후 양국이 내년 일련의 고위급 군사 접촉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등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류샹 주미 중국대사관 국방부관이 만났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이 군사 관계 복원에 합의했지만 양국이 고위급 접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얼마나 빨리 조율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고 있다.

중국 국방 수장의 공식으로 양국의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관측도 있다. 리샹푸 전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0월 해임된 뒤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일부 미국 관리는 중국 국방부장이 공식적인 점을 고려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아닌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중국 쪽 카운터파트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하룻밤 사이에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을 포함해 양국 국방·군사 지도자들이 실질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황순길 기자

美매체 “트럼프, 북핵동결-제재완화 검토”...트럼프 “가짜뉴스” ‘재집권시 북핵용인 검토’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 보도에 트럼프 반박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을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는 구상의 하나라고 폴리τικο는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폴리τικο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

이라고 설명했다.

폴리τικο는 "트럼프는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의 동지 중 일부는 소용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의 편에서 있는 북한을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미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폴리τικο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익명 소식통들을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이는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정보이며, 잘못된 쪽으로 이끌고, 혼

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썼다. 또 "그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판문점과 하노이에서 각각 김 위원장과 만났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책임 중 북한의 1인자와 대면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 송진영 기자

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썼다. 또 "그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판문점과 하노이에서 각각 김 위원장과 만났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책임 중 북한의 1인자와 대면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 송진영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하 특으로 똑똑!

PRIME 센터
무로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용 목적!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통금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 ~ 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 ~ 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효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리미엄클럽 매월 1종류 중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미엄클럽 매월 1종류 중정 이벤트 공지사항)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서 역대 최대 550억원 규모 필로폰 압수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에서 마약 거래가 급증하자 태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4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12일 미얀마와 인접한 서부 칸 짜나부리주 톡파롬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알약 약 5천 만정을 압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산주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 타양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이 결성한 '형제 동맹'이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세에 나서 교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지역이다.

태국-미얀마-라오스의 접경지대인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꼽힌다.

특히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이 지역의 마약 생산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UNODC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최규철 기자

군경은 검문소에서 고철과 플라스틱병 등 재활용 폐기물 아래에 마약을 숨기고 이동하던 대형 트럭을 적발해 탑승자 부부 2명을 체포했다. 이후 거주지 등을 수색해 더 많은 마약을 발견했다.

태국 경찰이 압수한 단일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로, 시가 15억 바트(552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태국은 국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필로폰을 1정 이상 소지하면 마약 판매범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단속 물량은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도 2021년 라오스의 필로폰 5천500만정 압수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제레미 더글러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설명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협력하는 범죄조직들이 주로 미얀마 산주에서 생산하는 마약이 태국과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다

수십만 번의 리시브와 수백만 번의 스매싱
땀과 투혼을 쏟았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코트에 새긴 투혼의 발자국
대한민국 배드민턴 세계 정상이라는 역사

삼성생명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안세영

서승재

강민혁

김원호

김가은

김혜정

안세영 · 서승재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상 수상

자랑스러운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입니다

정재욱 허광희 박경훈 최지훈 안윤성 최평강 김병재 이소율 이연우 이유림 유서연 김유정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V9 에어/어스 2WD 19인치 7인승 : 복합 4.2km/kWh (도심 4.7km/kWh, 고속 3.6km/kWh) | 공차중량 2,42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01km (도심 559km, 고속 429km) ◆ EV9 에어/어스 2WD 19인치 6인승 : 복합 4.2km/kWh (도심 4.7km/kWh, 고속 3.6km/kWh) | 공차중량 2,40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01km (도심 559km, 고속 429km) ◆ EV9 에어/어스 2WD 20인치 7인승 : 복합 4.1km/kWh (도심 4.6km/kWh, 고속 3.5km/kWh) | 공차중량 2,43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80km (도심 538km, 고속 408km) ◆ EV9 에어/어스 2WD 20인치 6인승 : 복합 4.1km/kWh (도심 4.6km/kWh, 고속 3.5km/kWh) | 공차중량 2,41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80km (도심 538km, 고속 408km) ◆ EV9 에어/어스 4WD 19인치 7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2km/kWh, 고속 3.3km/kWh) | 공차중량 2,55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5km (도심 490km, 고속 389km) ◆ EV9 에어/어스 4WD 19인치 6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2km/kWh, 고속 3.3km/kWh) | 공차중량 2,53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5km (도심 490km, 고속 389km) ◆ EV9 에어/어스 4WD 21인치 7인승 : 복합 3.9km/kWh (도심 4.3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56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54km (도심 502km, 고속 393km) ◆ EV9 GT-Line AWD 21인치 7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1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61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3km (도심 483km, 고속 394km) ※ 위 연비(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수치로서 운전방법, 차량속도, 탑승인원, 적재중량, 차량설정, 정비상태, 외기 온도, 기상 조건 및 도로 상태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 시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실주행거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교 불법촬영 사건에 불안감 커진 제주...3주간 긴급 합동점검

유관기관 간담회 열어 점검과 예방 교육·홍보 등 강화하기로

최근 제주의 한 고교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과 유관기관이 협업체 합동 점검과 교육·홍보에 나선다.

지난 13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불법촬영 범죄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지난 13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불법촬영 범죄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대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이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세부적인 대책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우선 오는 18일부



지난 13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불법촬영 범죄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모든 유관기관이 모여 점검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불법촬영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학교별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유형과 대처 방법 등을 전파해 경각심을 높인다. 필요시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교육을 지원한다. 홍보도 강화하기로 해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은 기관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 전광판 등에도 송출한다.

제주도는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전체에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활동의 하나로 교육청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교사 등을 위해 Wee클래스를 통한 심리검사, 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과 협한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에서는 경찰서 여성수사팀에서 수사하던 고교 불법촬영 사건을 제주경찰청 여성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정민 기자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민관경 협력 '평택 시민안전 비전' 선포

경기남부경찰청과 평택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사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해 대응하는 내용의 '평택 시민안전 비전'을 선포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오후 평택경찰서 대강당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 130여명이 참석해 지난 특별 치안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시와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시민안전 모델을 출범하고 협업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시와 경찰은 지역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로 했다.

주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자율방범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평택시 차원의 자율방범연합대 출범식이 최초로 진행돼 민·관·경 협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앞서 평택시는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평택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점 6곳을 선정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주민미군 등과 175회에 걸쳐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정 시장도 지역 치안협의회를 개최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1년간 사업비 53억 6천만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추진했다. / 노승윤 기자

시와 경찰은 주한 미군기지 2곳과 사령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다양한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미군에게 선포식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 노승윤 기자

12년 만에 재개원한 사천시에서 유일 분만 산부인과서 첫 아기 태어나

경남 사천시는 최근 12년 만에 재개장한 지역 유일 분만 산부인과에서 첫 아기가 태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주인공은 사천시 사천읍에 거주하는 A씨 부부의 셋째 아이다. 3.16kg의 여아로 지난 9일 청아여성의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병원은 경남도가 분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원래 지역에서 유일하게 분만 기능이 있었으나, 저출산 심화로 인해 의료진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며 2012년부터 일반 진료만 했다. 이 때문에 사천지역 임신부가 출산하려면 승용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지역 밖의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의 경우 사천시 신생아는 475명인데 모두 다른 지역 분만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시는 이날 청아여성의원에서 분만실 개원 후 첫 번째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출산지원금과 지역 사회에서 준비한 출산 축하 용품 등을 전달했다.

김종준 병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귀하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12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 재개원 첫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 양희진 기자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경비 100만원 지원한다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일 시 | 2023. 12. 5.(화) 19:30 장 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회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입차인이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구는 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에 따라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자·송달료 등)을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에서 내년 1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본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 가지 지원사업 중 한 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 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 02-2600-6891, 6906, 6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지연 기자

제주 한라생태숲 산림교육 어른·아이 모두에 인기

최근 6년간 매해 1만명 넘는 성인·유아 숲 체험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시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14일 제주도 한라생태숲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인·유아 대상 '숲 해설 교육 프로그램'에 1만2천720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숲 해설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난해 1만6천966명, 2021년 1만7천98명, 2020년 1만2천433명, 2019년 1만8천441명, 2018년 1만7천40명 등이다.

성인 대상 숲 해설 교육은 전문 숲해설가 2명이 배치돼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주말 숲 체험·특별 숲 체험 행사가 이뤄진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전문 유아 숲지도사 3명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한라생태숲이 프로그램 참가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9.3%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 노승만 기자



한라생태숲 숲 해설은 14개 테마 숲과 탐방로, 유아숲체험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산림교육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고품질 숲 체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도내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추가 조성해 제주 산림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 노승만 기자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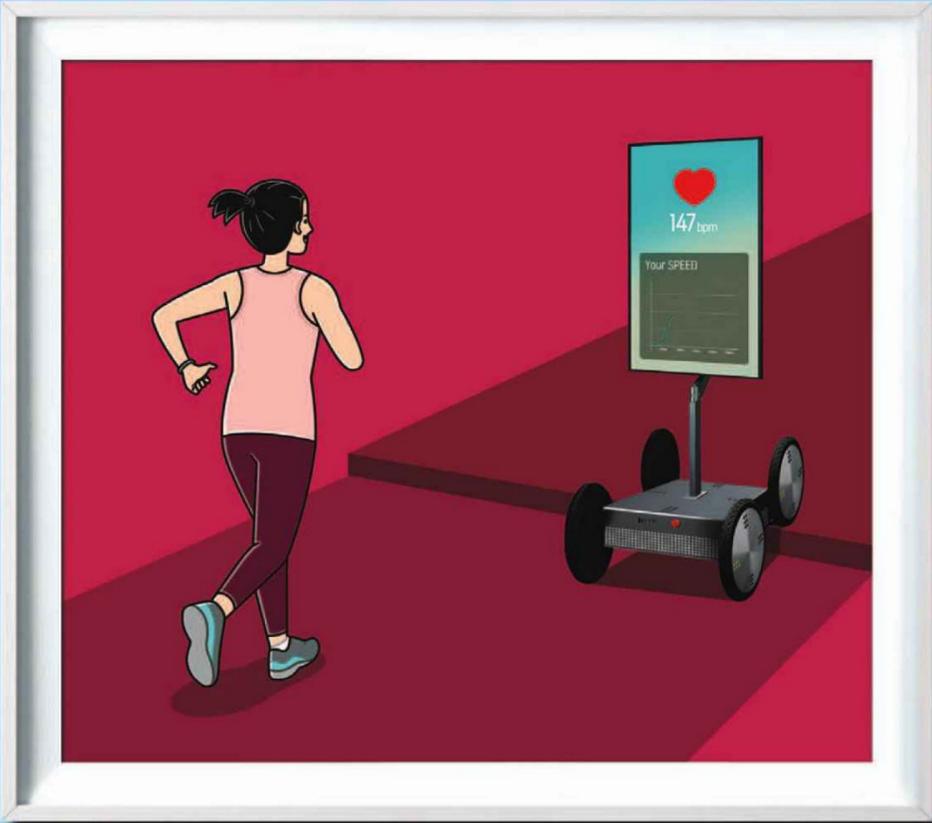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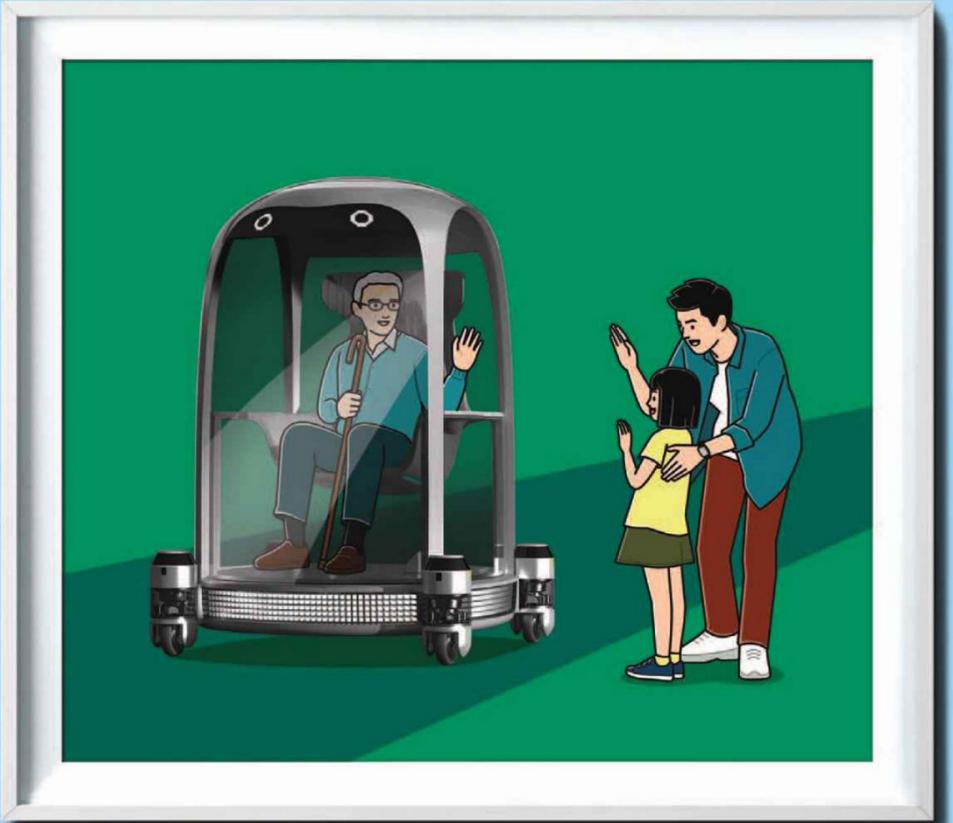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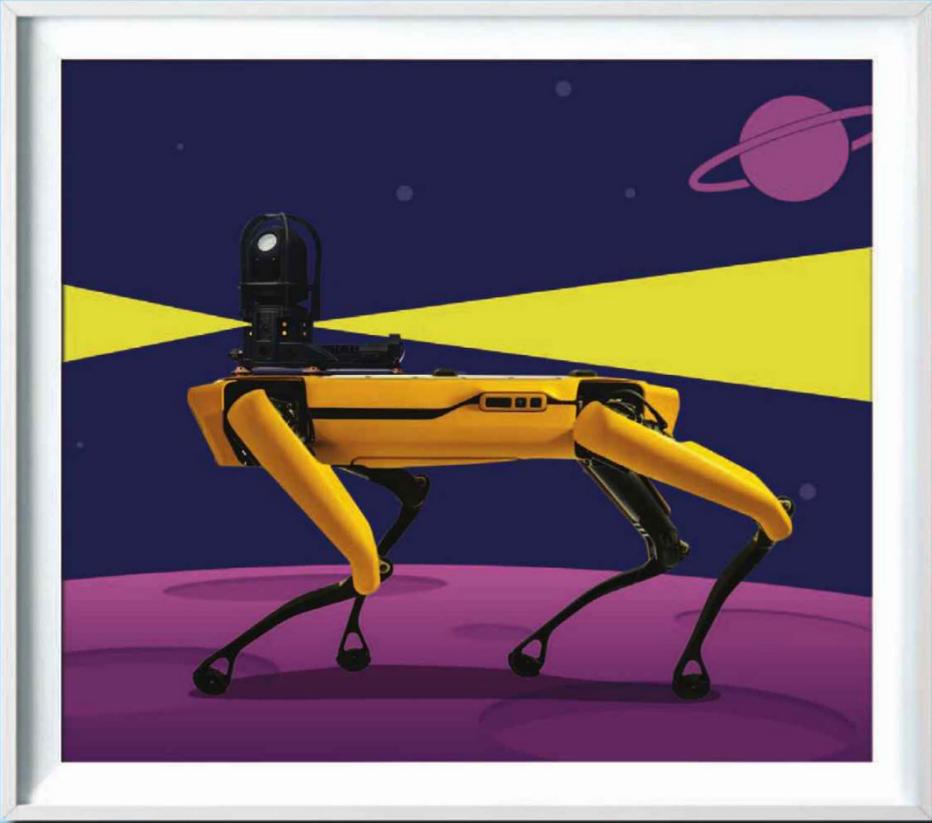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만배다 학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형정기 Air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모빌리티,
새로운
내일을 그리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비전을 만나보세요

서산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방만경영 탓...단호히 대처”

“대표·관리직 인건비 높고 불필요한 지출 많아...부채 계속 증가세”



시내버스 운행중단 비상수송대책 브리핑 하는 김일환 서산시 건설도시국장

충남 서산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서산시는 그 원인을 업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목했다. 김일환 시 건설도시국장은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령버스 측은 보조금을 부족하게 지원한 탓이라며 책임을 시에 돌리고 있지만, 시는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서령버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국장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올해 진행된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들었다. 용역에서는 서산 시내버스 노선 수는 인접 시·군보다 많지만 면적과 인구당 운행 차량은 적어, 효율성이 낮고 서비스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연간 1억4천600만원으로 충남 평균인 8천900만원을 훨씬

웃돌고, 관리직 인건비도 인접 시·군보다 50% 높았다. 외주 정비비 1.63배, 타이어비 1.8배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부채는 130억원가량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추정됐다. 김 국장은 “시민의 발을 불모로 근본적인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 탓만 하는 것은 시를 사금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벼랑 끝 전술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세버스 7대와 택시 50대를 읍·면지역에 투입했다. 유관기관·군부대와 인접 시·군 등에도 차량 동원 협조를 구하고, 기업체와 교육청에는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조정과 조기 방학 등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

다. 서령버스에 대해서는 조만간 운행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령버스가 3차례 계속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수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서령버스가 지난해 일부 노선 운영을 중단하자 운행개시명령을 내렸고, 불응하자 과징금 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산시는 장기적으로는 대산권역과 해미·고북권역에 공공형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이후 운산권역과 인지·부석권역까

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령버스는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이날 첫차부터 전체 시내버스 52대 가운데 전기·수소버스 13대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서령버스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비 2천400만원과 직원 퇴직금 8천400만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부터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한 상황이다. / 남정희 기자



기자회견 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 시민사회단체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김영환 규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최근 불거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을 규탄하면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만약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금전거래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 논란”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려던 업체의 관계사와 금전거래를 하고도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변명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또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로 도지사가 된 것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빈털터리가 아니라 각종 의혹과 잘못된 도정운영으로 도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범리 검토 후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전하면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 의혹을 인지한 수사당국은 시민사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먼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한옥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하지만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 오문섭 기자

태풍때마다 초토화 부산 송도해안가 테트라포드 2천개 투입

태풍 때마다 월파와 해일로 큰 피해를 본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대에 피해를 예방할 연안정비 사업이 착공했다. 부산 서구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송도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국·시·구비 109억6000만원을 투입한 이 사업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높은 파도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거북섬 인근에 있는 기존 이안제 뒤편에 12.5~20t급 테트라포드 2천여개를 투입한다. 해안으로 넘어오는 파도의 양을 줄이기 위해 월파 방지공도 설치한다. 월파 방지공은 기존 이안제 앞쪽의

수변 공간에 길이 140m, 해수면 높이 5m 규모로 설치되며 파도가 이안제를 넘어오더라도 다시 바다 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중 곡면 구조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5년 12월이다. 그동안 송도해수욕장 일대는 바다와 배후지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매년 태풍 피해가 반복됐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월파로 해안가 도로에 있던 횡단 등 식당과 숙박시설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한편 송도해수욕장 인근 남항과 암남동 등대로 일원의 경우 부산시에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항 방재호안 정비 사업을 벌였다. / 박정호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강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꽃았다가 송치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꽃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꽃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키로 입장을 바꿨

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여러 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실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지원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꽃았



구자근 국회의원

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배연수 기자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은 언제쯤...학부모들 “지원조례 청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5살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수시로 아픕니다.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울산 북구 지역 학부모 10여 명으로 구성된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회’는 14일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울산에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가 밤에 급하게 열이 오르거나 배앓이할 때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을 때가 있다”며 “어렵게 찾아가던 응급실에서는 소아 전문의가

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젊은 인구의 탈 울산 원인 중 하나”라며 “울산에서 18세 미만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5살, 3살짜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5살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수시로 아프다”라며 “얼마 전 큰아이가 아파 새벽 5시부터 북구에서 경남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급히 가는데,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한 조례’ 청구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 중 지정해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이다.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57곳을 운영 중이지만, 울산 등 4개 지자체에는 한 곳도 없다. / 손현성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 IRP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을 위한 카운트다운!

- 5!** 최대 148만 5천원 세금 절약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 4!** IRP 연금 전환 시 수수료 면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 3!** 퇴직연금 수익률을 관리하는
신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2!** '신한 SOL'에서 편하게
평생소득 솔루션 제공
- 1!** 맞춤형 연금상담 공간
'신한 연금라운지' 오픈 (노원점, 일산점)

개인형 IRP 대고객 경품 이벤트

-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 중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하신 분들 대상 경품 자동 추첨 / 단, 퇴직금 제외, 자동이체 금액 및 계약이전 금액 포함
- 참여 방법** 이벤트 요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경품 지급일까지 정상 계좌 유지 조건에 한함
- 이벤트 기간** 2023.11.1(수) ~ 2023.12.15(금) **당첨자 발표** 2023.12.22(금) *당첨자 개별 MMS 발송

이벤트 경품

- LG GRAM 노트북 [14인치] - 2명
- 아이패드 프로 11형 4세대 - 2명
- BBQ 황금올리브 치킨 - 1,000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1,000명

■경품 지급일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된 계좌에 한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유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당첨자 발표일에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개별 MMS 발송됩니다.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 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타인에게 발송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유효기간 경과 후 재발송 불가합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모바일 금액상품권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 7. 30 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시 경품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 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원금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5594-1호(2023.12.04~2023.12.3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460호(2023-12-07~2023-12-15)

추신수, 2024시즌 뒤 은퇴...최저연봉·주장·기부와 팬서비스

KBO리그 역대 두 번째인 16억7천만원 연봉 삭감 자청하며 구단 운영 도와

추신수(41·SSG 랜더스)가 2024시즌까지만 뛰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다.

부산고를 졸업한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빅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타자'가 된 추신수는 24번째 시즌을 더 특별하게 보낼 생각이다. 프로야구 SSG는 14일 "추신수가 2024년, 한 시즌을 더 뛰고 은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구단을 통해 "비시즌 동안 가족과 함께 (은퇴와 현역 연장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SSG와 팬분들의 응원, 무엇보다 후배 선수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며 "그만큼 야구와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느껴 구단과 진로를 함께 고민했다. 구단도 이승용 신임 감독님도 나를 필요로 했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야구를 해온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은 성격도 중요하지만, 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퓨처스(2군)팀에서 후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공유하는 등 팀에 공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SSG 랜더스 추신수

추신수의 은퇴 시즌은 '최저연봉, 기부와 팬서비스, 주장 선임'으로 더 특별해졌다. 추신수는 KBO리그 최저인 3천만원에 2024시즌 연봉 계약을 하기로 했다.

SSG 구단은 "추신수가 팀 운영을 위해 배려했다. 최저 연봉에 계약해 매우 고맙다"며 "추신수의 배려로 구단은 셀러리캡, 선수 연봉, 자유계약선수(FA) 영입 등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신수의 연봉은 17억원이었다. 내년 연봉은 무려 16억7천만원이 삭감된 3천만원이다. 이는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삭감액이다. 추신수의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가 2020년 25억원에서 2021년 8억원으로 17억원이 깎인 게, KBO리그 역대 최고 연봉 삭감 기록으로 남아 있다. 추신수는 연봉 3천만원도 전액 기부할 생각이다. 추신수는 '현역 마지막 해'인 2024년에 기부와 다양한 팬서비스도 약속했다.

추신수는 "마지막 시즌인 만큼 그동안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홈, 원정 팬 관계없이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 때도 비시즌에 한국을 찾아 충주 성심학교, 유소년 야구, 난치병 환자, 소방관 가족 등을 위해 고액을 쾌척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거 191명 전원에게 1천달러씩 생계 자금을 지원했다. KBO리그에서 뛰 2021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선정을 펼쳤다.

추신수는 2021년 SSG와 계약하자마자 당시 연봉 27억원 중 10억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SSG 저연봉 선수에게 야구용품 후원하고, 부산 모교와 SSG 연구소 인턴에 있는 학교 야구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추신수는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24억원의 기여를 기부했다. 실제 기부액은 더 많다.

추신수는 구단에 '다양한 팬서비스'도 제안했다. 친필 사인 실착 유니폼 선물, 특별 사인회, 아마야구 지원 등 팬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한다. / 최준용 기자



FIFA 월드컵 공식 계정에 올라온 욱일기 수경 전(왼쪽)과 수경 후 사진

FIFA 월드컵 공식 계정에 등장한 욱일기, 누리꾼 항의에 삭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일본의 욱일기가 등장했다가 누리꾼들의 항의로 삭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 홍보 프로모션 이미지가 계정에 올라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하는 우리와 레즈(일본)를 소개하는 이미지도 업데이트됐다"며 "유럽과 출신 나카지마 쇼야가 메인에 등장했고 배경으로 욱일기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누리꾼이 댓글과 다이렉트 메시지(DM)로 항의해 욱일기가 삭제되고 다른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일본인들에게 풍어(豊漁)나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왔다"면서도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FIFA 같은 국제기구에서 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 범죄의 공표를 상기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 응원단의 욱일기 응원을 FIFA 측에서 즉각 제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FIFA에서의 욱일기 응원 제지, 공식 SNS 계정에서의 욱일기 삭제 등의 사례를 통해 향후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또다시 등장할지 모를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없애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도현 기자

KB바둑리그, 19일 팬들과 함께하는 '오프닝 미디어데이' 개최



2022-2023 KB바둑리그 미디어데이

이달 말 개막하는 2023-2024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처음 팬들과 함께하는 '오프닝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KB바둑리그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

울 강남구 논현로 엘리어나 호텔에서 8개 팀 감독과 선수 등이 참가하는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번 오프닝 미디어데이에는 대회에

참가한 키스(Kixx)·윈익·바둑메카 의정부·한국물가정보·수려한합천·정관장전북·울산 고려야연·마한의심장 영암, 8개 팀의 감독과 팀별 주장을 포함한 2명의 선수가 참석해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디펜딩 챔피언'인 키스(Kixx)의 김영환 감독과 신진서 9단을 비롯해 윈익 이희성 감독과 박정환 9단, 바둑메카 의정부 김영삼 감독과 김명훈 9단, 한국물가정보 박정상 감독과 강동윤 9단, 수려한합천 고근태 감독과 원성진 9단, 정관장전북 최명훈 감독과 변상일 9단, 울산 고려야연 박승화 감독과 신민준 9단, 마한의심장 영암 한해원 감독과 안성준 9단 등이 참가한다. / 신영철 기자

바둑리그 사상 처음으로 팬들도 초청돼 선수들과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진다.

또 지난 시즌 큰 호응을 얻었던 대학생 서포터즈도 미디어데이에 함께 할 예정이다.

2023-2024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28일 한국물가정보와 수려한 합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5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경기는 매주 목·일요일 오후 7시부터 열리며 바둑TV와 유튜브 채널,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 2억5천만원, 준우승 1억원, 3위 6천만원, 4위 3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정규리그 승리 팀에 1천400만원, 패한 팀에는 700만원의 대국료가 책정됐다. / 신영철 기자

한국, 칠레 꺾고 남자 주니어 월드컵 하키 13-14위전 진출



(21세 이하) 남자 월드컵 대회 8일째 13-16위전에서 칠레를 2-1로 꺾었다.

한국은 0-1로 끌려가던 4쿼터에 서태원(순천향대)과 김대현(한국체대)이 한 골씩 넣어 역전했다.

우리나라는 15일 이집트와 13위 자리를 놓고 맞대결한다.

16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 4강 대진은 독일-인도, 프랑스-스페인 대결로 압축됐다.

한국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3회 FIH 주니어 / 노건우 기자

새로운 이동의 시작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소트램이 울산에서 달립니다

Ulsan TRAM

‘보고 싶다 BTS’...입대에 ‘봄날’ 6년만에 역주행...83개국서 1위

그리움 절절히 묘사된 가사가 팬들 마음 대변...日 오리콘 차트도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6년 전 히트곡 ‘봄날’이 멤버들의 입대와 맞물려 순위가 급상승하며 전 세계 83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 노래는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에 올랐다.

빅히트뮤직은 “다수의 국가에서 연말을 맞아 캐럴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머라이어 캐리의 메가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제치고 ‘봄날’이 정상에 오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봄날’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발매한 ‘윈스 외전 : 유 네버 워크 얼



멤버 RM과 뷔 입대를 배웅하러 나온 BTS 멤버들

론(WINGS 외전: 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이다. 브릿록(Brit-

rock) 감성과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결합한 얼터너티브 힙합곡으로, 멀어진 친구

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멤버 RM과 슈가가 작곡에 참여했다.

지난 12일 지민과 정국의 동반 입대로 멤버 전원이 군 공백기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기다리는 아미(방탄소년단 팬덤)의 바람이 차트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빅히트뮤직은 풀이했다.

‘봄날’ 가사에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 얼마나 기다려야 /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에서 보듯 절절한 그리움이 묘사돼 있다.

이 노래는 전날 일본 오리콘 차트가 발표한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도 깜짝 1위를 기록했다. / 임현희 기자



뉴진스, 미국 ABC 새해맞이 특집쇼 출연 K팝 걸그룹 최초

결그룹 뉴진스가 미국 ABC TV 새해맞이 특집쇼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킨 이브 위드 라이언 시크레스트 2024’(Dick Clark’s New Year’s Rockin’ Eve with Ryan Seacrest 2024)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14일 밝혔다.

‘뉴 이어스 로킨 이브’는 미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특집 방송으로, 12월 31일 저녁에 시작해 새해 첫날 새벽까지 이어진

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해 최고의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고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도 전파를 탄다.

K팝 걸그룹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뉴진스가 최초다. 한국 가수로는 지금까지 싸이, 방탄소년단, 제이홉,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출연한 바 있다. 뉴진스는 히트곡 ‘슈퍼 사이’와 ‘ETA’를 들려줄 예정이다. / 홍지민 기자

‘서울의 봄’의 힘...한국영화 11월 매출, 팬데믹 이전 70% 회복



한국영화 관객 절반이 ‘서울의 봄’ 관람...“천만 영화 될 수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이 팬데믹 이전의 70%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11월 한국 영화 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은 411억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11월 평균(586억원)의 70.2%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22.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 영화 관객 수 역시 432만여명으로, 팬데믹 전(717만명)의 60.2% 수준으로 회복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2%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봄’이 한국 영화 전체 매출액

과 관객 수를 끌어올렸다고 영진위는 분석했다. ‘서울의 봄’은 개봉 일인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매출액 277억원, 관객 수 295만명을 모았다. 한국 영화 전체 매출액·관객 수의 절반가량으로, 지난달 한국 영화를 본 2명 중 1명은 ‘서울의 봄’을 관람한 셈이다.

영진위는 “‘범죄도시 3’보다는 완만한 흥행 속도지만, 여름 시장 박스오피스 1위였던 ‘밀수’보다는 빠른 흥행 추세”라면서 “‘서울의 봄’이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외화를 포함한 지난달 전체 영화 매출액은 732억원, 관객 수는 764만명이었다. 팬데믹 이전 11월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54.3%, 46.9% 수준이지만, 전년도 같은 달보다는 15.4%, 19.9% 늘었다.

외국 영화의 총 매출액은 321억원으로, 팬데믹 이전(761억원)의 42.1%에 머물렀다. 관객 수 역시 333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36.4%에 불과했다.

/ 장호성 기자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 황인엽·정채연·배현성 출연



왼쪽부터 배우 황인엽·정채연·배현성

내년 중 JTBC에서 방송될 예정인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 황인엽, 정채연, 배현성이 캐스팅됐다고 제작진이 13일 밝혔다.

‘조립식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10대 시절을 함께 했던 세 남자가 10년 만에 다시 만나 펼쳐지는 이이기를 담은 청춘 로맨스물이다.

황인엽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만한 외모에 아쉬운 것 없어 보이는 김산하를 연기한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할 사연을 안고 사는 김산하는 어린 시절 남매처럼 자라온 친구들을 훌쩍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다시 나타난다.

긍정적이고 강한 기운으로 톱 톱 문진 윤주원 역은 정채연이 맡았다.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아빠 밑에서 사랑 받고 자란 인물로, 정이 많고 씩씩하다. 배현성은 3인방 중 강해준을 연기한다.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치여 살았지만 햇살처럼 맑고 애교도 많다.

특히 윤주원의 아버지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농구 하나만큼은 죽기 살기로 하는 열혈 농구 소년이기도 하다.

드라마 ‘주군의 태양’(2013), ‘푸른 바다의 전설’(2016), ‘스물다섯 스물하나’(2022) 등을 만든 김승호 PD가 연출을 맡았다. / 강연주 기자

엑소 세훈, 2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늦게 전해 죄송”



그룹 엑소의 세훈이 오는 21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세훈이 12월 2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며 “조용히 입소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구체적인 장소 및 시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훈은 이날 팬 플랫폼 위버스에 자필 편지를 올려 “너무 늦게 소식을 전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살피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그렇다 보니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엑소 멤버 가운데 카이도 지난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 박지원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남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

가입내역 조회

연금 청구

증명서 발급

예상연금액 및 가입내역 조회, 연금 청구, 전자증명서 발급 등 국민연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앱 설치 바로가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그 모든 순간, 끝까지 함께할 내 편 하나

앞으로도 계속될 대전하나시티즌의 뜨거운 도전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신탁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 TI | 핀크 |